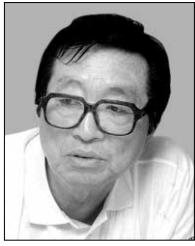




수양과 교양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본지 논설위원

우리 나라의 교육 제도는 수양과 교양을 도외시한 채 학생들을 마치 경주마처럼 시험을 향해 달리게 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풍요로운 인격을 위해 교양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과목을 설정하고 있으나, 인간의 존재 의미를 묻거나 세계관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을 겨우 웃도는 지식의 나열이다. 고시 또한 고급관리 자격시험이지만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윤리, 철학 등의 교양적 요소는 배제되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제도상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는 교양을 접할 기회가 없다. 이로 인해 이 나라에는 전공 분야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전문박사와 '잘살아보세'의 속물주의가 만연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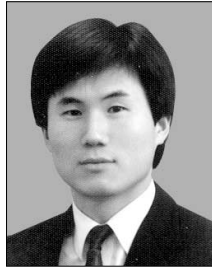
교양교육을 낭비로 여기는 풍조는 사회의 정신풍토를 메마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령 기술로서의 건축·토목에는 전통이나 문화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행정이, 경제인이 몰가치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용할 때 환경문제는 오히려 거주장소되기조차 할 것이다.

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교양, 넓은 뜻의 정신교육을 위탁할 곳은 종교 외에는 없다. 그러나 종교계 또한 대학입시철이 오면 때를 노릴새라 별별 이름의 기도회를 열고 있다. 종교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속물주의에 휩쓸리고 있는 지경이니, 결국 중생은 아집과 미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만다.

본래 불자는 불교적 교양이 문화 수준을 높이며 사회를 정화한다고 믿어 '증생구제'의 사명감을 되새겨 왔다. 기복적인 백일기도 등에 앞서 수양과 교양의 보급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수학능력 평가시험(수능)이 끝났다. 아니 수능은 끝나지 않았다. 재수생 강제로 고3생들은 벌써 2005년 수능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여김없이 금년에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처럼 수능 비판 자살은 되풀이되고, 공교육 무용론이 점점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능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장장이 테세우스를 생각해 보라. 그는 큰 침대와 작은 침대를 만들어 지나가는 행인을 늪인 다음 그 침대에 맞지 않으면 사자의 돌출된 부분을 질러내어 침대에 맞추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신화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죽은 신화가 아니라 21세기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이다.

학생 자신의 자아나 꿈, 적성 혹은 소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수능 점수라는 침대에 맞추어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이 사회는 잘라내고 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이 시대의 테세우스인 '수능 점수'는 아예 인간 존재 자체를 무시하게 만든다. 예컨대 프롤은 현대 문명을 비평하면서 "존재냐 소유냐?"를 묻고 있다. 그는 존재가 먼저이고 소유는 그 다음이라고 주장한다. 존재, 즉 사람이 먼저이고, 부나 지위 혹은 지식은 그 다음이다. 우리의 교육은 거꾸로 소유가 먼저이고, 존재는 그 다음이다.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교수·윤리학

존재의 의미 상실한 교육

아니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렇고, 부모의 가치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소유에 의해 존재가 결정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소유의 논리에 따를 경우, 지식이나 부를 소유하지 않는 자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자살은 소유 교육의 필연적 귀결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의 근본 방향이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자살과 같은 수능 후유증은 예견된 일로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 역시 소망이 없다. 침대에 사람을 맞추어 서는 안 되고, 거꾸로 침대를 사람에 맞추어야

한다. 수능에 청소년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수능을 맞추어야 한다. 청소년을 수능의 노예로 만들지 말고, 청소년이 수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교육의 근본 방향이 소유에서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 소유의 교육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테세우스이다.

맹자의 어머니에게 교육의 지혜를 배우자. 그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공동묘지 근처, 시장 근처 그리고 학교 근처로 3번 이사를 했다. 장례 흉내와 장사꾼 흉내를 내던 맹자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져 비로소 공부에 전념하여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맹모의 삼천지교에서 자신의 공부를 뒷바라지한 맹모의 지극정성을 본받아 학원 일인지 강남으로 이사한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맹모 삼천지교를 다르게 해석한다. 맹모는 아들로 하여금 죽음을 통해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나아가 장사를 통해 삶의 현장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 학교에 앞서 공동묘지와 시장 근처에 삶의 터를 잡은 것이다.

교육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에듀카레'(educare)는 '밖으로 이끌어내다'의 뜻이다. 본래 청정한 자기 성품을 깨달아 일체의 집착과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다. 불교 그 자체가 크나큰 교육이다. 교사는 밖에서 새로운 무엇, 즉 지식을 주입시키는 자가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이미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개발시키도록 하는 계몽자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내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드러나지 않는 재능을 마음껏 밖으로 표출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바로 사람됨의 교육이다. 이는 소유의 교육이 아니라 존재의 교육이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국립공원 정책진단을 통한 공원내 개발사업의 문제점

생태환경 보전위한 공원법 개정 절실

관리시스템 총체적 점검 필요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이념의 부재로부터 출발해 관련법과 제도, 관리 기구 및 비용, 자원 관리 방식 등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에서는 자연자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미흡해 공원 내 서식·분포하는 희귀 동·식물 및 외래 동·식물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탐방 프로그램 및 탐방객안내소 등 탐방편의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관리 역시 재정비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체제도 다원화돼 자원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잘못된 인사교체와 비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다.

자연공원법으로 3종류의 자연공원과 사적자연, 해상·해안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등 현 자연공원법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지정 이후 접근도로 개설 및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외에는 공원 내 정비 및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광·위락형 시설 및 단순 통과용 도로 등이 국립공원 내 설치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법에 남아 있는 여러 개발법적 요소들을 삭제하고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환경 보전 중심으로 자연공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원 내 도로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공원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모색해야 한다.

벌통형 방식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임서호
경시대 교수
관광학과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주민관광 사업에 대한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공원 밖 지역주민들은 사도(케이블카) 설치 등 국립공원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국립공원 입구는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집단시설 지구는 경관훼손은 물론 사업성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벌통(각종 관광시설을 기존도시/취락 지역에 위치시키는 벌통형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단시설 지구 기능을 공원 밖으로 추방시키면 국립공원 내 환경훼손을 최소화 및 생태관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또 국립공원 내 취락지구 자연 친화형 민박시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주변 도시나 취락지구 관광시설 개발 유도로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성수기 시 거점지역 숙박과 셔틀버스 이용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고, 숙박시설 선택 다양성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벌통형 방식을 채택할 경우 난개발과 기존 국립공원 대부분의 경우 집단시설지구 제척 불가능, 주민들의 관광시설 요구 급증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충지역 설정과 신규 지정 국립공원부터 적용, 기존 국립공원 중 집단시설지구 제척가능 지역을 검토, 취락지구내 주민주도형 숙박시설 규모 제한과 개선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산 관통보다 우회가 더 비용절감



신영철
대전대 교수
디지털경제학과

자연환경자원의 총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이뤄져 있다. 사용가치는 해당 대상을 직·간접적인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이고, 비사용가치는 해당 대상의 직·간접적인 이용과 관련된 편익이 아닌, 자유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말한다.

시공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산 관통도로 대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의 비용은 교통신잡비 1조5천억원에 추가공사비 7천억원 중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 중에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해 북한산 국립공원 보존가치를 추정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을 현재대로 보존하는 것의 가치는 국민 1인당 16,198원(1999년 가격이었다).이중기·한상열이 금액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보존에 부여하는 가치는 연간 7,300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비사용가치인 보존가치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향후 보존가치를 할인율 7.5%로 현재가치화하면 거의 10조에 이르는 금액이 된다.

북한산 관통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산 우회도로가 북한산 관통터널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영화로 세대차이 매워



서울노인복지센터(원장 지원)가 노인, 장년, 청소년 3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마스터 앤 커맨더' 영화 시사회를 열었다. 11월 18일 서울 강남 학동 시네시어에서 열린 이번 시사회는 영화제작사인 화천공사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3세대 150명이 참여했다.

이번 시사회는 3세대간 대화와 공동의 문화 향유를 통해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장군속미

전쟁이 남긴 또다른 아픔



미국과의 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재가 마구잡이로 약탈되고 있다. 10월 15일~11월 3일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산 파괴 실상을 조사하고 돌아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카불박물관의 유물 70%가 약탈당했으며, 이 중에는 불교유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KOICA 조사단은 각국의 고고학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존은 외면한채 발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목숨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목숨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자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11월 셋째주, 넷째주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파동명상연수원으로 수련을 감행하신(은)귀할생각과, 감탄)을 해 줄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 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니다.